

# 보도자료

(농림부)

- 제공일 : 2005. 10. 26.
- 제공자 : 농림부 농업협상과
- 과 장 : 서 해 동
- 서기관 : 이 충 원
- 전 화 : 500-1736

이 자료는 2005년 10월 27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제목 : WTO/DDA 농업협상, 주요국 입장차 좁히려는 노력 가속화

- 도하개발아젠다(DDA) 농업협상 회의가 2005.10.17.~10.21 제네바 세계무역기구(WTO)에서 개최되었다.
  -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국 제안서에 대한 평가들이 이어졌다. 미국, 호주, 브라질 등 수출국들은 EU의 시장접근 분야 제안에 대한 추가적인 양보를 강하게 요구하였다.
  - 반면, EU는 시장접근 분야뿐 아니라 농업협상 내 국내보조와 수출경쟁 분야 그리고 농업 외 비농산물과 서비스 협상에서도 균형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.
  - 농산물 순수입국 그룹(G10)은 관세상한을 반대하는 한편, 협상과정에서 G10을 부당하게 고립시킬 경우 G10은 협상을 결렬시킬 수도 있다(Veto group)는 점을 강조하였다.
- 10.19~20에는 미국, EU, 브라질, 호주, 인도 등 주요 5개국 (FIPs)간 각료 회동과 5개국 외 일본, 스위스 등 6개국이 추가로 참여한 주요 11개국 회의(FIPs 확대회의)가 개최되었다.

- 주요국 회의에서 미국, 브라질, 인도, 호주 등은 EU가 시장 접근 분야에서 최소한 G20가 제안한 수준 이상으로 양보해야 되며,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EU가 협상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.

※ 관세감축폭 관련, 미국은 60% 이상의 관세를 90% 감축, EU는 90% 이상의 관세를 50% 감축, G20는 75% 이상의 관세를 75% 감축을 주장하고 있고, 민감품목 관련, 미국은 전체 품목의 1%, EU는 8%를 주장

- 제6차 WTO 각료회의(2005.12.13.~12.18, 홍콩)가 약 5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, 향후 10여 일간이 홍콩 각료회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.

- 아직 미국과 EU의 입장차가 크지만, EU가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협상 분위기다. EU의 양보 여부가 향후 협상 진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- EU 집행위원회는 DDA 협상에서 미국의 농업보조금 감축, 개도국 비농산물·서비스 시장 개방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EU의 농업분야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면서 회원국들을 설득하고 있으며, 10.27. 새로운 제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- EU의 새로운 제안에서는 기존 제안보다 관세감축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. 정부는 EU 제안을 예의주시하며,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.

- G10, G33(개도국 특별품목 그룹) 등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.

첨부: WTO/DDA 농업협상 동향과 대책

# WTO/DDA 농업협상 동향과 대책

2005. 10.

농 립 부

# 목 차

1. DDA 농업협상 최근 동향 .....	1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2. 향후 전망 및 대응방향 .....	4
-----------------------	---

## <참고>

1. DDA 농업협상 시장접근 분야 G10 공동입장 .....	5
2. DDA 농업협상 추진경과 .....	6
3.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 주요내용 .....	7
4. DDA 농업협상 주요 그룹 현황 .....	8
5.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분포 및 구조 .....	10
6. DDA NAMA 및 서비스 분야 협상동향 .....	11

# 1. DDA 농업협상 최근 동향

□ DDA 협상은 '05.12월 홍콩 WTO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 타결을 목표 진행중

○ 홍콩 각료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최근 미국, EU, G20, G10 등 주요국간 고위급 회의를 통한 논의 가속화

### <최근 주요국 고위급 회의 개최 현황>

- 미국·EU 각료 회동 (9.22, 파리)
- QUAD 각료 회동 (미국·EU·인도·브라질, 9.23, 파리)
- FIPs (QUAD + 호주) 고위실무급 회동 (9.23, 파리)
- FIPs+(11개국) 고위실무급 회동 (9.24, 파리)
- 미국 주관 주요국 각료 회동 (10.10, 쾰리히)
- FIPs 각료 및 FIPs+ 회의 (10.11, 10.19~20, 제네바)

□ 최근 시장접근과 국내보조 분야를 중심으로 관세 및 보조금 감축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

○ 특히, 10.10. 미국 주관 주요국 각료회의 계기에 미국과 EU가 국내보조 감축 수치를 제시하는 등 관세 및 보조금 감축 구체수치에 대한 논의 가속화

□ 대부분 국가들간에 관세 및 보조금을 최소한 UR시 보다 더 많이 감축한다는데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, 다만, 미국, EU, G20, G10 등 주요국간 관세감축 수준 및 관세감축시 신축성 반영 등 시장접근 분야 핵심쟁점에 상당한 입장차 존재

○ Lamy WTO 사무총장은 수출경쟁, 국내보조 분야는 목표수준의 윤곽이 잡혀간다고 평가하고, 시장접근 분야는 목표수준이 불명확하므로 향후 시장접근 분야에 협상을 집중하자고 촉구

## 〈DDA 농업협상 주요국 제안 내용〉

### 〈 시장접근 〉

	EU	미국	G20	G10
관세감축 공식	단순선형방식	구간내 누진감축방식	단순선형방식	단순선형방식 또는 공식내 신축성 반영
구간경계 및 감축율	(선진국) 90%이상 50%감축 60~90% 40% 30~60% 30% 0~30% 20% (개도국) 120%이상 33.3% 80~120% 26.7% 40~80% 20% 0~40% 13.3%	(선진국) 60%이상 90%감축 40~60% 80% 20~40% 70% 0~20% 60% (개도국) 60%이상 - 40~60% - 20~40% - 0~20% -	(선진국) 75%이상 75%감축 50~75% 65% 20~50% 55% 0~20% 45% (개도국) 150%이상 40% 80~150% 35% 30~80% 30% 0~30% 25%	(선진국) 70%이상 - 50~70% - 20~50% - 0~20% - (개도국) 100%이상 - 70~100% - 30~70% - 0~30% -
관세상한	(선진국) 100%	(선진국) 75% (개도국) X%	(선진국) 100% (개도국) 150%	반대
민감품목	전체 세번의 8%	전체 세번의 1%	전체 세번의 1%	전체 세번의 일정 % (10~15%)
특별품목	제한적 인정	한시적 인정	특별품목 지지	특별품목 인정

### 〈 국내보조 〉

	EU	미국	G20	G10
AMS 감축	EU·일본 70%감축 미국 60% 기타 -	EU·일본 83%감축 미국 60% 기타 37%	EU·일본 80%감축 미국 70% 기타 60%	EU - 일본·미국 - 기타 -
보조총액 감축	-	EU 75%감축 미국·일본 53% 기타 31%	EU 80%감축 미국·일본 75% 기타 70%	-
De-minimis 감축	최소 65% 감축	50% 감축	AMS 없는 개도국 감축 면제	-
Blue Box	신규 Blue Box 제한규정 필요	농업총생산액의 2.5%(상한)	Blue Box 제한	-
Green Box	현행 규정 유지	현행 규정 유지	개도국 관련규정 완화	현행 규정 유지

### 〈 수출보조 〉

\* 수출보조금 철폐 : 미국은 2010년까지 철폐, EC는 품목별 차등 철폐 주장

- EU, G10(한국 포함), 인도, 중국 등은 미국의 시장접근 분야 제안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는 반면, 미국, 호주, 뉴질랜드 등은 EU와 G10의 제안이 목표수준이 낮다고 평가
  - G20는 미국과 EU의 중간선에서 관세감축안을 제시하여 선진국을 압박하는 한편, 개도국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감축안을 제안
  - 관세상한의 경우 G20(수출 개도국 그룹), 미국에 이어 EU도 도입을 지지하고 있어 사실상 G10만 반대하고 있는 상황
- 국내보조 분야는 감축보조(AMS)를 절대액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감축하는데 공감대 형성 (우리나라는 최하위 구간대에 속할 것으로 예상)
  - 다만, EU, 일본, 미국 등 감축보조 최대 사용 3개국 처리, 감축보조 감축 수준, 신규 블루박스에 대한 규율 문제 추가 논의 필요
  - 감축의무가 없는 허용보조(Green Box)는 기본 틀이 바뀌지 않을 전망
    - ※ 우리는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는 등 농정의 기본방향을 감축보조(AMS)에서 허용보조(Green Box)로 전환중
- 수출경쟁 분야에서는 수출국영무역기업 규제 방안, 식량원조 규율 방안 등에 대해 추가 논의 필요

## 2. 향후 전망 및 대응방향

### 가. 향후 전망

- 미국, EU, G20, G10 등 주요 국가 및 그룹이 구체제안을 제시한 상황이며,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EU가 입장차를 좁힐 가능성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는 중
    - 향후 2주간이 홍콩 각료회의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, 특히 미국은 국내보조의 목표수준에 상응하는 시장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전망
    - 주요국간 추가 협의를 통해 정치적 차원의 협상 가속화 예상
  - 미국 행정부는 의회로부터, EU 집행위는 회원국들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어 양측 모두 선불리 협상 타결을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
    - 그러나,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홍콩 각료회의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공유하고 있음을 감안, 핵심쟁점에 대한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
    - 일부에서는 미국과 EU가 시장접근 분야에서 중간정도의 목표수준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
- ※ EU, G20 등은 농업 분야 뿐 만 아니라 비농산물(NAMA), 서비스 등 DDA 협상 분야간 균형된 결과 도출을 주장하고 있어, 여타 분야 협상 진전도 농업협상 타결에 영향을 줄 전망

## 나. 대응방향

- 우리로서는 주요국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탄력적으로 협상에 대응하되, 궁극적으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협상 추진
  - 특히, 관세감축, 관세상한, 민감품목, 특별품목 등 핵심쟁점간 연계를 염두에 두면서 협상국면에 따라 전략적 대응
  - G10(농산물 순수입국 그룹), G33(개도국 그룹) 등 유사입장국과 공조, 쟁점별 공조 세력 규합 등 다각적인 협상 노력 전개
- 세부원칙 확정 이후 양허협상 단계에서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확보에 협상력을 집중
  - 다만, 우리의 객관적 경제여건을 볼 때 국제사회의 여론이 호의적이지만은 않으며,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해서는 일정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으로 예상
- DDA 협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 강화
  - 협상 주요단계마다 농업인, 농민단체, 언론계, 학계 등에 대해 협상 동향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회에 보고
  - 농업인단체 등 NGO의 협상 동행을 추진하고 협상 동향을 설명하는 등 투명성 제고 노력도 병행
- 협상결과 분석 및 의견수렴을 거쳐 농업·농촌종합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탄력적으로 수정

<참고 1>

## DDA 농업협상 시장접근 분야 G10 공동제안

<10.10, 미국주관 각료회의>

### □ 관세구간수, 구간경계, 관세감축공식

- 관세상한 반대
- 관세구간수 : 4개
- 구간경계 : (선진국) 20/50/70%, (개도국) 30/70/100%
- 관세감축방식 : 단순선형방식 또는 선형방식에 제한적인 신축성 반영

\* 관세감축 폭 등 관련, 구체 수치 제안은 현 시점에서 위험부담이 많으므로 현재까지의 제안에 대한 평가 및 관세감축 방식에 대한 대안 중심으로 공동 입장을 제시(전략적인 측면을 감안, 필요시 예시 수준으로 제시)

\* 예컨대 최상위 구간 관세 감축율이 45% 단순선형 감축이면 민감품목 개수는 전체세번의 15%로 하고, 50±10%처럼 신축성이 있으면 민감품목 개수는 10%로 축소 가능

### □ 민감품목의 범위와 대우

- 민감품목의 수는 전체 세번의 일정 수준(%)으로 하고, 동 범위내에서 각국이 자유롭게 민감품목 지정
- 민감품목은 관세감축에 있어 별도 공식적용
- 관세감축공식의 신축성과 민감품목의 수는 반비례
  - 상대적으로 관세감축을 많이 할 경우 TRQ는 적게 증량
  - 신규 TRQ 설정 인정 및 TRQ 관리방식 개선도 TRQ 양허로 인정
  - TRQ 물량이 국내소비량의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조정 가능

## WTO/DDA 농업협상 추진경과

□ UR협상 결과의 토대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 하에 2001.11월 도하개발아젠다(DDA) 협상 출범

※ 당초 협상일정 : ① 세부원칙(Modality) 수립('03.3) ② 이행계획서 제출 ('03.9, Cancun 각료회의) ③ 협상완료('04말)

○ 2003.3월 하빈슨 농업협상 의장은 완전한 형태의 협상 세부 원칙(Modality)을 확정하려 했으나 합의 실패

○ 2003.9월 칸쿤 각료회의에서는 완전한 형태의 세부원칙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중간단계로 기본골격(Framework)만이라도 합의하려고 했으나 실패

□ 2004년초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하여 2004.7월말까지 우선 기본 골격(Framework)만의 타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협상 진행

□ 회원국과 주요 협상 그룹간 논의를 거쳐 2004.8.1 WTO 일반 이사회에서 기본골격 채택

○ 당초 협상시한이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2004말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하고, 제6차 WTO 각료회의를 2005.12월 홍콩에서 개최기로 결정

□ 2005.12월 홍콩각료회의시 세부원칙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7월말까지 세부원칙 초안을 제시코자 하였으나, 수출입국간 입장 차이로 초안 마련에 실패

<참고 3>

DDA 농업협상 기본골격 주요내용('04.8.1)

□ 시장접근분야

- 구간대 감축방식에 따라 관세감축 : 관세수준에 따라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감축하고, 높은 관세는 더 많이 감축
- 민감 품목 : 관세감축에는 신축성을 두도록 하되 저율관세 수입물량(TRQ)을 증량
- 개도국우대 : 관세감축율·이행기간 등 우대, 특별품목(Special Product)은 관세감축에 보다 많은 신축성 부여

□ 국내보조분야

- 무역왜곡보조\* 총액감축 : 무역왜곡보조가 많을수록 더 큰 폭으로 감축하고, 이행 첫해에 무역왜곡보조 총액 20% 감축
  - \* 무역왜곡보조 : 감축대상보조(AMS), 최소허용보조(De-minimis), 생산제한제도하의 직접지불(Blue Box)
  - 감축대상보조(AMS)의 품목간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품목별 상한 설정
- 블루박스 보조금 지급한도 : 농업총생산액의 5%로 규정하고 생산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새로운 블루박스 도입
- 최소허용보조(De-minimis) 감축 : 개도국 특별대우를 고려

□ 수출경쟁분야

- 수출보조 : 합의하는 일자까지 폐지, 수출신용·식량원조 등 규제
- 개도국에 대한 수출 물류비 지원 허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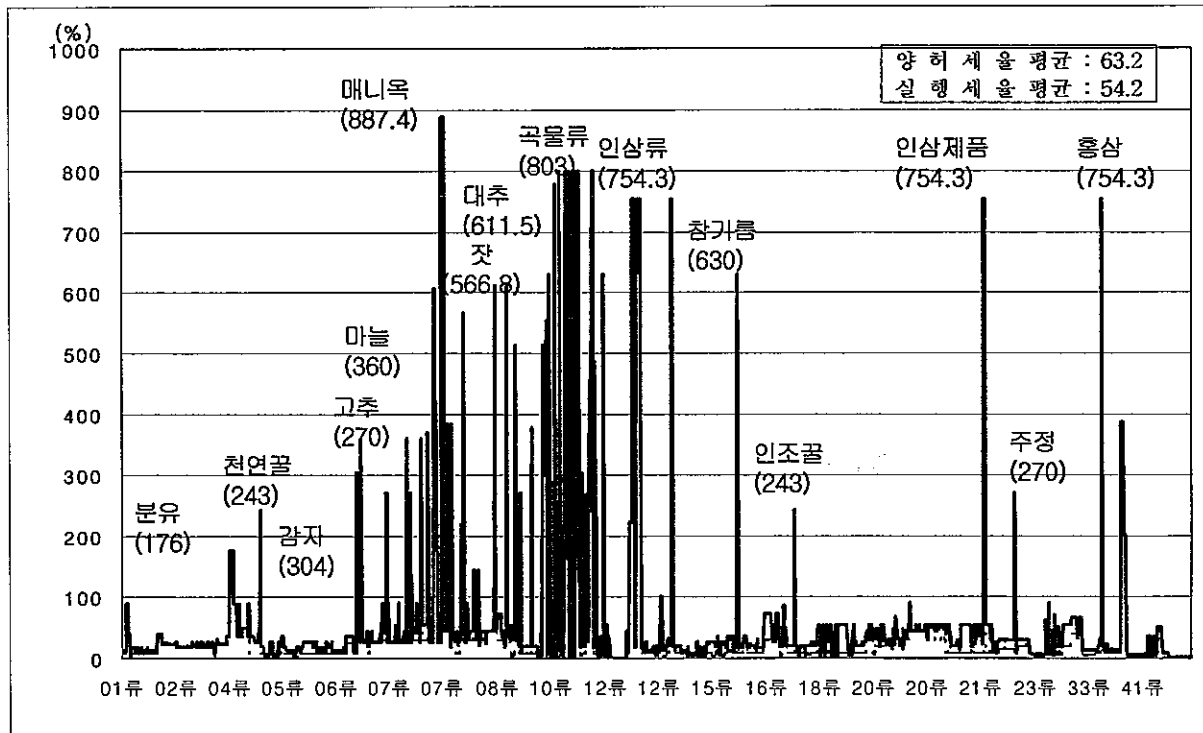
<참고 4>

## DDA 농업협상 주요 그룹 현황

구분	대상 국가	기본입장	비 고
MF6	한국, EC, 일본, 스위스, 노르웨이, 모리셔스 ※ MF : Multi-functionality (다원적 기능) ※ NTC : Non Trade Concerns (비교역적 관심사항)	- 농산물 수입국 입장 대변 (농업의 NTC 주장) · 관세감축에 있어 UR방식 선호	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에 대한 배려 주장
G-5	미국, EC, 호주, 브라질, 인도		농업협상주요국 그룹
G-10	한국, 일본, 스위스, 노르웨이, 대만, 이스 라엘, 아이슬랜드, 리히텐슈타인, 모리셔스	- 농산물 수입국 입장 대변 · 관세상한 설정 반대 · 관세감축에 있어 신축성 주장	수입국 그룹
케언즈 그룹	캐나다, 칠레, 브라질, 아르헨티나, 파라과이, 우루과이, 인도네시아, 필리핀, 태국, 호주, 뉴질랜드, 콜롬비아, 말레이시아, 남아공, 볼리비아, 코스타리카, 과테말라	- 농산물 수출국 입장 대변	수출국 그룹
G-20	아르헨티나, 브라질, 볼리비아, 중국, 칠레, 에콰도르, 과테말라, 인도, 멕시코, 파라과이, 필리핀, 남아공, 태국, 쿠바, 파키스탄, 베네 수엘라, 이집트, 나이지리아, 인도네시아 등	- 개도국 입장 대변 · 선진국의 국내보조 대폭 감축, 수출보조 철폐 · 개도국 우대 강화	강경 개도국그룹
G-33	한국, 중국, 도미니카, 온두라스, 인도, 인도 네시아, 자메이카, 케냐, 마다가스칼, 모리셔스, 몽골, 모잠비크, 나이지리아, 니카라과, 파키 스탄, 파나마, 페루, 필리핀, 세네갈, 스리 랑카, 터키, 우간다, 베네수엘라 등	- 개도국 입장 반영 · SP 품목 및 개도국 특별간급 수입제한제도(SSM)에 중점	특별품목 그룹
G-90	ACP, LDC, 아프리카그룹 국가들로 구성 모리셔스, 남아공, 이집트 등	- 아프리카, 중남미, 아시아 일부국가 포함	
ACP 그룹	아프리카, 카리브해, 태평양지역 77개 국가	- 로마협약에 의해 EC와 특혜적 무역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	

<참고 5>

##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 분포



##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 구조

양허관세	품목수	품목예시
500%이상	46	맨니옥, 곡분류, 참깨, 인삼류, 맥주보리 등
200~499	78	대두, 전분, 고구마, 감자, 마늘, 고추, 밤 등
100~199	18	분유, 감귤, 양파, 보리분, 사료용근채류 등
50~99	189	오렌지, 과일혼합주스, 면류, 당면, 고추장 등
40~49	132	과일류, 쇠고기, 버섯류, 수박, 오이, 당근 등
30~39	147	치즈, 주류, 유제품, 과일음료 등
20~29	249	닭고기, 냉동채소류, 돼지고기, 식용유 등
10~19	381	곡물조제품, 물, 과당, 포도당, 과수요목 등
0.1~9.9	183	섬유원료, 원피, 모피, 밀, 당밀류 등
0	29	종자류, 가축정액 등
미양허	16	쌀 관련 품목
계	1,452	

<참고 6>

DDA NAMA 및 서비스 분야 협상동향

가. 서비스 협상 10월 논의 동향

□ 9.23 Quad 회의에서 핵심국 모임구성에 합의한 다음 협상 목표, 협상 진행 방식에 대해 10월 동안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일부 개도국의 반대로 추진력 저하

- 협상 목표 설정과 관련, 선진국들 중 미국, EU는 기존 양허안을 기준으로 양허 수준을 결정하자고 주장, 다른 나라들은 미양허 분야를 X% 양허하자고 주장하는 등 서로 다른 의견 개진
- 브라질 등 일부 개도국들은 현행 양자 방식을 고수할 것을 주장하면서 강제적인 협상 목표 설정과 보완적 방법 논의 진전에 반대

나. 비농산물 협상 10월 논의 동향

□ 브라질, 인도 등 개도국들은 평균 관세율을 고려한 스위스 공식을 사용하자는 주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은 스위스 공식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 시작

- EU, 미국은 계수 수치로 선진국 10, 개도국 15 제안
- 미국, 캐나다, 노르웨이, 뉴질랜드는 선진국 계수 10, 개도국은 계수 10과 함께 신축성 인정을 제안
- 대부분 개도국들은 EU 제안에 반대하는 가운데 인도, 브라질을 제외한 개도국들은 스위스 공식 선진국 계수는 10 이하, 개도국은 15-30 정도의 계수를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
- 인도, 브라질은 원형 스위스 공식 논의 자체를 반대